

미·중 패권전쟁 속 ‘K반도체’의 통증



이해익 원장 : 리즈경영컨설팅 대표컨설턴트·CEO칼럼니스트

- 한국CEO연구 포럼 연구위원장, 머니투데이에 CEO 에세이 연재
- (전)진로그룹 이사·캠브리지총괄전무, 한국능률협회 교수요원
- 경실련 경제정의연구소 기업평가위원장으로 활동
- (겸임)한국팔기외고문, 한국표준협회 경영고문, 최고경영자 과정 출강
- 서울상대졸업 011-241-8558, haeikrhee@hotmail.com

“아메리카 퍼스트(America First).” 부동산업자며 TV쇼맨 출신인 45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2017~2021년 재임)이 시끄럽게 ‘미국제일’을 외치며 강대국으로 올라선 중국과 무역전쟁을 일으켰다. 여러모로 시끄럽게 정치를 엮다보니 도널드 트럼프는 재선에서 고배를 마셨다. 오바마 행정부때 부통령 출신 46대 조 바이든 대통령(2021~현직)은 아예 한 수 더 나아가 인플레이감축법(IRA)과 반도체법과 이에 따른 행정명령 등으로 중국을 여러모로 압박하고 있다.

전기자동차로 왕성하게 활동하던 ‘K전기차’도 뒤통수를 얻어맞았고 중국에서 생산과 소비 시장을 크게 둔 ‘K반도체’가 몸살을 겪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미국은 재정적자, 무역적자를 합친 쌍둥이적자를 오랜 세월 겪고 있는 나라다. 이런 판에서 ‘아메리칸 퍼스트’를 떠들며 중국을 압박하는 건 대중(對中)콤플렉스다. 1인당 PPP(구매력 평가기준)GDP를 보면 중국은 1만7312달러(2020년)를 반영한 국민총소득 GDP는 24조6811억 달러다. 즉 미국의 23조3931억달러보다 1조2880억달러 차이로 중국의 경제력이 더 강력하다고 볼 수 있다.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여러모로 강하게 미국중심공급망재편 과정에서 한국에 공장건설하러던 대만 반도체기업을 설득과 강요로 미국투자자로 돌리게 되었는데 알려졌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2년 9월6일(현지시각) 지나 러몬드 미국상무장관과의 인터뷰에서 대만기업 글로벌웨이퍼의 도리스 수CEO와 한시간 통화로 대미투자결정을 받아냈다고 보도했다. 세계3위 실리콘웨이퍼 생산업체 도리스 수CEO는 “한국의 건설비용은 미국의 3분의1에 불과하다”고 말하자 러몬드장관은 “그걸 맞춰주겠다”고 제안했다. 그로부터 2주후 텍사스주에 50억달러(약6조9195억원)를 들여 신규공장계획을 밝혔다.

또 미국과 일본의 외교장관과 경제장관은 22년 7월29일(현지시간) 미 워싱턴DC에서 ‘경제판 2+2’로 불리는 미·일 경제정책협의위원회(EPCC)를 열었다. 사실 대만과 한국에 의존을 벗어나 미·일이 공급구조를 갖기 위해서다. 한·미·일 정상회담이 잦아지면서도 반도체 미국투자자에 대한 어려움을 한·미 정상회담 대화소재도 못되는 원천이유가 아닌가 싶다.

세계1위 반도체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인 대만의 TSMC가 미국 애리조나 생산가동시기를 1년 늦춰 2025년이 될 것임을 TSMC의 CEO 류더인회장이 밝혔다. 대만이나 한국보다 건축비가 3배 이상인 미국에서 인재 확보도 어렵다. TSMC 창업자인 모리스 창은 “미국에서 동일한 칩을 생산하는데 드는 비용이 대만보다 50% 이상 비싸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결국 작년 7월 17일(현지시간) 미국반도체산업협회(SIA, Semiconductor Industry Association)는 바이든 행정부의 중국에 대한 제한 조치 자제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SIA는 인텔, IBM, 퀄컴, 엔비디아 등 미국반도체기업부터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대만 TSMC 등이 모두 회원사로 가입한 곳이다.

2022년에 세계수요의 3분의1인 1800억 달러(약 227조 원)에 달하는 반도체를 사들인 중국시장을 포기할 수 없기 때문이다.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자 SK그룹 회장은 최근 대한 상의 기자 간담회에서 “중국을 포기하면 우리에게 미래가 없다”고 강조했다.

부가세 영세율 과표확정 및 회계반영시 외화외상매출금 평가의 기준·재정환율

통 화 명				1월 19일 (금)	1월 22일 (월)	1월 23일 (화)	1월 24일 (수)	1월 25일 (목)
미	달	러	(USD)	1342.40	1336.50	1334.70	1336.00	1339.10
일	본	엔	(JPY)	906.57	901.91	901.52	900.82	907.34
영	국	파	운 드	(GBP)	1705.85	1697.89	1696.00	1695.85
캐	나	다	달 러	(CAD)	995.29	995.01	990.06	992.83
홍	콩	달	러	(HKD)	171.65	170.94	170.73	170.81
중	국	원	(CNH)	186.06	185.35	185.11	186.00	186.65
유	로	화	(EUR)	1460.26	1456.25	1452.35	1450.63	1457.61
호	주	달	러	(AUD)	882.70	881.96	876.63	879.56
싱	가	폴	달 러	(SGD)	998.70	996.83	994.67	996.23
말	레	이	시	아	링	기	트	(MYR)
				284.53	283.31	282.39	282.63	283.02